



[바이오] 한미약품 암세포 공격하는 면역항암제 개발 L2



Life

[AI뉴스] "설명하고 추천하는 뉴로-심볼릭 시가 대체될 것" 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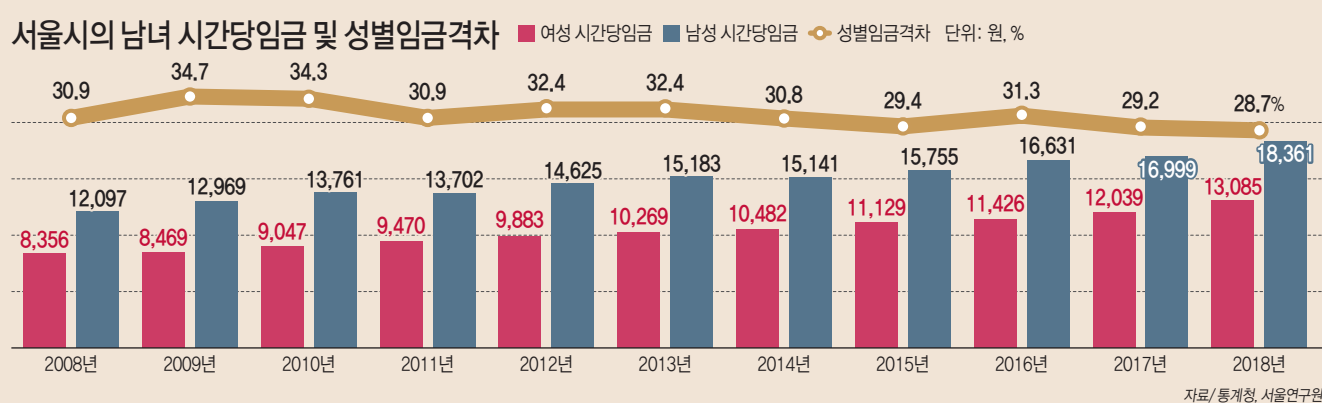
# 성별 임금격차 10년째 '제자리'... 경력단절 사전 예방해야

## 서울연구원 분석

여성 임금근로자 비율 증가에도 임금격차 10년째 30% 내외 수준

OECD 회원국 중 차이가 가장 많아 저임금 노동자 많아 격차 심화

경력단절 이후 취업 지원보다 여성 인적자본에 투자 늘려야



서울에서 지난 10년간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성별 임금격차는 30% 내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절반 이상은 저임금노동자로 향후 성별임금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8년 44.5%에서 2018년 47.2%로 2.7%p 늘었다. 같은 기간 성별임금격차는 30.9%에서 28.7%로 2.2%p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임금 차이가 가장 컸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08년 8356원에서 2018년 1만3085원으로 10년 동안 4729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2097원에서 1만8361원으로 6264원 증가해 여성보다 1535원 더 많았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줄곧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간 성별임금격차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이 아직까지 미흡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 여성노동자 중 절반 이상은 저~중저임금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시간당임금이 8438원 미만인 노동자를 저임금노동자로 정의했다. '서울시 성별 시간당임금 구간별 비중 추이'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여성 중저임금노

동자 비율은 25.6%이고 중저임금노동자는 25.6%로 전체의 절반 이상(51.2%)이 저~중저임금노동자였다. 반면 서울 남성 가운데 저임금노동자는 13.3%, 중저임금노동자는 16.2%로 전체의 29.5%만이 저~중저임금노동자였다.

서울연구원은 "여성 저임금노동자가 남성보다 장래성 없는 일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 가능성이 낮다"며 "여성이 저임금노동에 집중되진 않게 될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서울시의 성별 임금격차는 4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50대와 60대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벌어졌다. 임금 차이는 15~29세 0.7%에서 30~39세 14.3%, 40~49세 34.3%, 50~59세 37.7%, 60세 이상 37.3%로 증가했다.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여성은 20대 후반~30대 중반에 걸쳐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40대에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더라도 저임금, 임시·일용직에 종사해 이전 연령대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 이후에 취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단기적 재정 투입보다는 여성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불연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타당”... 서울시 승소 서울 지하철로 택배 실어나른다

법원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서울시, ‘택시 3無 정책’ 등 특별단속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내린 운행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법원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29개사(946대) 법원택시회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처분을 내렸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원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누적이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7.2%에 불과했던 승차거부 처분율은 올해 52.9%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동기(3839건) 대비 1921건(50%) 줄었다.

시는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지역은 모바일 시민투표 앱 ‘앱보팅’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역은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오후 11시~익일 오전 1시30분)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추진

서울지하철이 이전 물건도 실어나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해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하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는 도시철도 인프라(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를 이용해 친환경 물류 체계를 구축, 도심 내 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최근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고 수도권 지역 집중이 심화되면서 물류업계는 교통혼잡과 미세먼지 증가, 근로환경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택배물동량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도로운송의 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차량기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10월 개발제한구역 내 차량기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됐다. 이달 중 법령 개정이 확정되면 차량기지를 이용한 물류수송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김성완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적극 추진,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모범업소 선정

전국 최초 ‘환경우수업소’ 선정, 홍보지원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020년 1월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우수업소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을 받게 되며 특히 저감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선정대상은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등이다.

먼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비닐봉투) ▲장례식장(1회용 컵? 접시) ▲세탁업소(세탁비닐) 등이다.

‘환경우수업소’에 지정되고자 하는 업소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경기도 자원순환과 또는 각 시군 자원순환 관련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ey@

## 서울 동작구에 친환경 아파트 들어선다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가결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흑석11구역은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최초로 적용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2012년 7월 재정비촉진

계획이 수립된 후 이 구역 재개발조합이 작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지만, 수익성 위주의 고층(최고 20층) 아파트 단지로 계획돼 현충원과 한강 등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금번 가결된 계획안은 현충원 인접부는 5~9층, 그 외 지역은 15~16층 이하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서울시

로 계획해 현충원과 서달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성했다. 아파트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이 만들어진다.

/김현정 기자